

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

- 브리퍼 :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-

< 1. 인사말씀 >

□ 안녕하십니까.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.

< 2. IAEA 종합보고서 관련 의문 >

□ IAEA 사무총장 방한 기간에 여러 언론이 인터뷰 등을 통해 그간 궁금했던 점을 묻고 답하는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○ 그로써 사무총장께서 대부분 잘 답해주셨지만, 정부가 파악한 정보를 덧붙여 국민들의 궁금증을 조금 더 잘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, 오늘 브리핑에서 간단히 다루고자 합니다.

① 2차·3차 시료 분석결과 없이 발표된 IAEA 종합보고서의 신뢰성

□ 먼저, IAEA는 2차·3차 시료 분석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, 1차 시료 분석결과만 가지고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는데,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.

□ 아시다시피, IAEA는 오염수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수행해왔습니다.

- 이 과정은, 기본적으로, 오염수 시료를 채취하고 핵종별 농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뤄지는데,
- IAEA는 특정 실험실이 단독으로 분석할 때 발생하는 오류 등을 고려해 다수 실험실이 참여하고 그 결과를 교차검증*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.

* (1차) 도쿄전력, IAEA 3개 실험실, 韓, 美, 佛, 스위스

* (2·3차) 도쿄전력, IAEA 3개 실험실, 韓

- 이러한 시료 채취 및 분석이 3차례에 걸쳐 이뤄졌는데, 1차 모니터링과 2·3차 모니터링은 그 방법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고, 이러한 차이가 종합보고서 포함 여부에 영향을 주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.
- 1차 시료는 ALPS 정화를 거친 오염수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는 K4 탱크에서 채취되었고, 2·3차 시료는 일반 저장탱크인 G4 탱크에서 채취되었습니다.
-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, 모든 오염수는 K4 탱크에서 측정 후,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시 ALPS 정화 단계로 되돌아가기 때문에,
- 일본 측 방류 실시계획의 현실성을 평가할 때 핵심은, 2·3차 시료를 채취한 일반 저장탱크 속 오염수 농도가 아니라, 1차 시료를 채취한 K4 탱크에서 정확하게 핵종 농도를 파악해내는 능력이라고 보아야 합니다.

- 그로씨 사무총장이 언론 인터뷰 중, ‘방류계획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샘플만 분석하면 된다’고 밝힌 것은 이러한 맥락입니다.

② IAEA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섭취가 문제없다고 밝혔다는 주장

- 다음으로, IAEA 보고서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주장에 대한 설명입니다.
 - IAEA 종합보고서에는 방류 예정인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을 섭취해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.
 - 그로씨 사무총장은 일본 측이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해 방류하면,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오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,
 - 이러한 발언이 기존 후쿠시마 인근 해역이 오염되지 않았거나,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섭취해도 괜찮다는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은 기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.
- 지난주에 국무조정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, IAEA 종합보고서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와 어떤 인과관계도 없음을 다시 강조드립니다.

③ IAEA 종합보고서에 ALPS 검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

- 마지막으로,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에 ALPS가 가장 핵심적인 설비임에도 불구하고, IAEA 종합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주말 간 언론에서 많이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- 그러나, 이런 지적과 달리, IAEA가 '20년 4월 발표한 ALPS 소위원회 관련 검토보고서에 ALPS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는 등의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.
- 또한 이와 별개로,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바와 같이, 우리 정부는 독자적인 검증을 통해,
 - 일본이 방류 전 농도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핵종(69개)이 적절하게 선정되었음을 확인했고,
 - ALPS 입출구 농도 분석, 흡착재 성능, 장기간 운영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, '19년 중반 이후 ALPS의 성능은 안정적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.

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

- 브리퍼 :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 -

< 1. 인사말씀 >

□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.

< 2. 우리 해역·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>

□ 7월 10일 기준,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○ 금요일까지 추가된 생산단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27건 (금년 누적, 4,925건)이었습니다. 전부 적합입니다.

○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은 가자미2건, 오징어 2건, 병어 2건, 삼치 2건, 날개다랑어 2건 등이었습니다.

○ 금요일까지 추가된 유통단체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28건 (금년 누적, 2,701건)입니다. 전부 적합입니다.

□ ‘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’ 운영 결과입니다.

○ 시료가 확보된 경북 포항시 소재 위판장의 참가자미 1건, 전남 고흥군 소재 양식장의 가리비 1건, 목포시 소재 위판장의 병어 1건, 총 3건을 조사한 결과, 적합이었습니다.

- 이를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98건을 선정하였고, 92건을 완료하였으며, 모두 적합이었습니다.
 - 현재 6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뤄지는데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고, 알려드리겠습니다.
-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.
- 7월 6일에 검사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8건(금년 누적, 2,960건)이고,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.
- 선박평형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입니다.
- 지난 브리핑 이후,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모두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.
 -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, 이바라키현, 미야기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36척에 대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였고, 모두 적합이었습니다.
- 우리 바다와 수산물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.